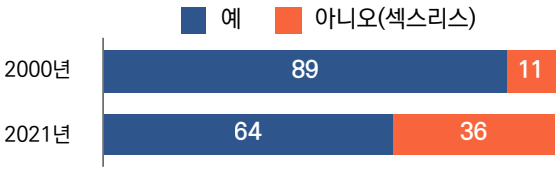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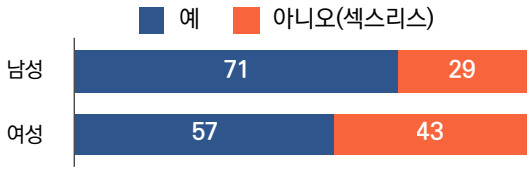
서울 성인 3명 중 1명 이상(36%), **지난 1년간 성관계 갖지 않아!**

- 연세대 염유식 교수(사회학)와 최준용 교수(의대 내과학교실)가 최근 발표한 '2021 서울 거주자의 성(性) 생활'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의 36%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(섹스리스)으로 나타났다.
- 현재의 섹스리스 비율 36%는 20년 전인 2000년의 11%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, 2010년 미국의 섹스리스 비율(32%)과 비슷하다.
- 섹스리스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, 여성 43%, 남성 29%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.
- 이렇듯 한국의 섹스리스 비율이 높은 것은 비혼/저출산 풍토와 여유가 없는 삶,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.

[그림]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
(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) (%)



[그림]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(성별)
(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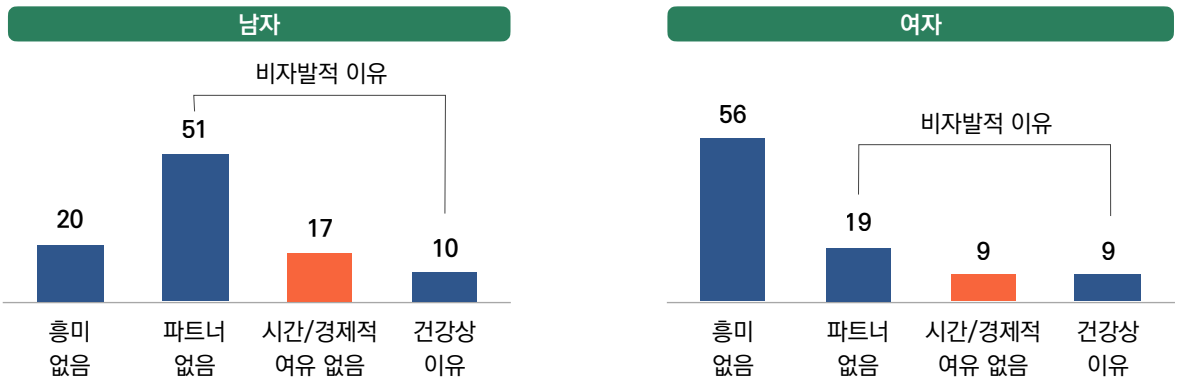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연세대 염유식 교수/최준용 교수, '2021 서울 거주자의 성(性)생활 조사', 서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,182명, 온라인 조사, 2021.1~5월
(2000년 자료는 미국 화이자의 '세계 성태도 및 성행동 연구'시 한국인 조사 결과임)

● 섹스리스 이유, 남성은 파트너 없어서 못한다! 여성은 흥미없어 안한다!

- 성관계를 갖지 않은 이유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, 남성은 '흥미가 없다'(20%)는 자발적 이유보다 '파트너가 없거나'(51%), '시간/경제적인 여유가 없는'(17%) 등의 비자발적 이유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반면 여성은 비자발적 이유보다 '흥미 없다'(56%)는 자발적 이유가 가장 컸다.
- 이번 조사에서 소득 수준별로도 섹스리스 비율이 차이가 났는데, 남녀 모두 하위층이 중상층보다 섹스리스 비율이 높아, 시간/비용 등의 여유와 자녀 부양 능력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이유(성관계 갖지 않은 사람 대상, 상위 4위) (%)



*자료 출처 : 연세대 염유식 교수/최준용 교수, '2021 서울 거주자의 성(性)생활 조사', 서울 만19 세 이상 성인남녀 2,182명, 온라인조사, 2021.1~5월)